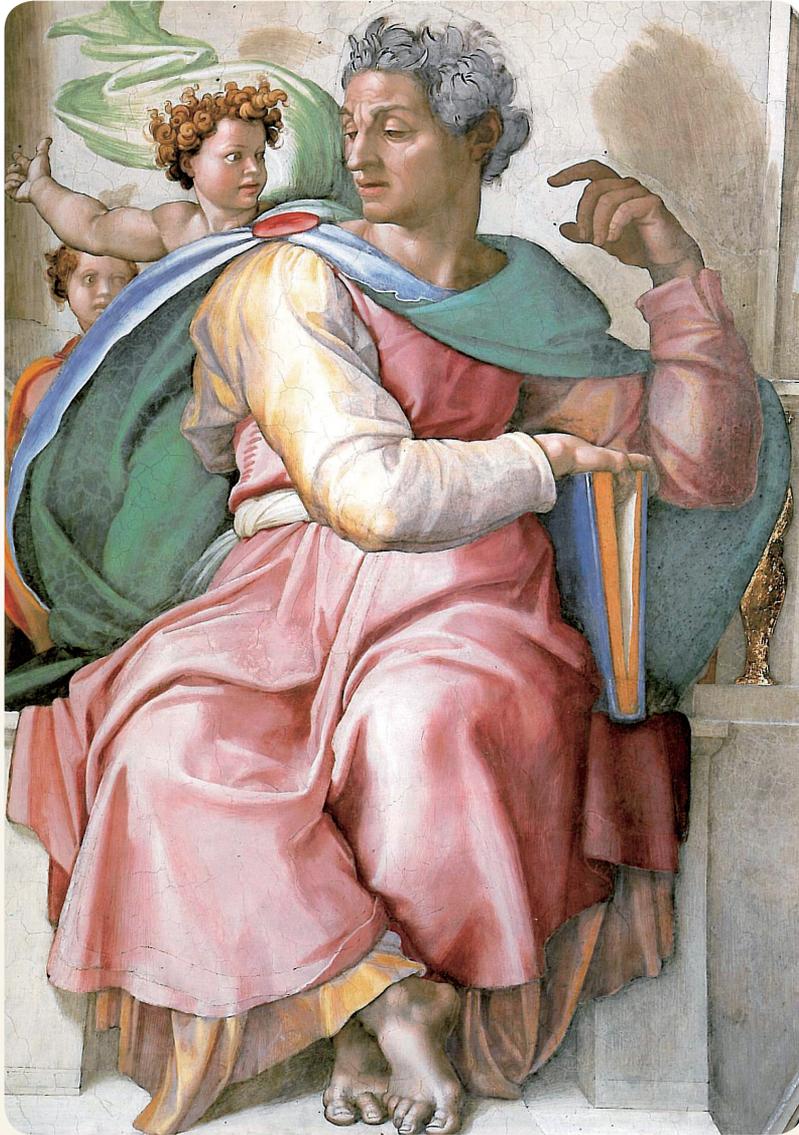


대구주보

연중 제23주일
2012.9.9.(나해) | 제1799호



┃ 금주의 성화

예언자 이사야

미켈란젤로가 장식한 시스티나 경당의 천장에는 이스라엘의 예언자들 중 이 이사야 예언자를 포함한 일곱분이 그려져 있다. 프레스코(회칠이 마르기 전에 채색하는 르네상스기의 회화 기법)이므로 회벽이 노후함에 따라 색상의 선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나, 1980년부터 1994년까지 복원 작업을 통해 원래의 색채를 되살렸다. 그 결과 매우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였던 시스티나 경당이 화려하고 강렬한 인상으로 되살아났다. 복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는 2000년 대희년을 선포하시면서 복원된 경당을 공개하셨다.

미켈란젤로
회벽에 프레스코, 1510년 경
바티칸 시스티나 경당

† 오늘의 전례

예수님께서서는 귀먹은 이들은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들은 말하게 하신다. (마르 7,31-37 참조)
말 때문에 생기는 오해와 다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우리는 말을 그리 잘 하지도 못하고, 남의 말을 썩 잘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사람의 말도 잘 헤아리지 못하는데 하느님의 말씀을 알아들으려니 참으로 난망한 일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입과 귀를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음 말씀에 나오는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제1독서 이사 35,4-7L 제2독서 야고 2,1-5 복음 마르 7,31-37

화답송 ◎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새로운 100년의 첫걸음을 힘차게 내디딤시다 • 9월의 신앙실천 캠페인 : 자주 성찰하고 고해합니다

에파타!



허인 베네딕토 신부 | 선산본당 주임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귀먹고 말 더듬는 이, 반병어리 한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치유행위는 “그때에 눈먼 이들은 눈이 열리고, 귀먹은 이들은 귀가 열리리라. 그때에 다리 저는 이는 사슴처럼 뛰고, 말 못하는 이의 혀는 환성을 터뜨리리라.”하는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예언자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패망을 예고하고, 그러나 메시아가 나타나 그들을 구원해줄 것이라는 하느님의 약속입니다. 하느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느님께 불충실한 결과 바빌론 유배라는 혹독한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끊임없이 예언자들을 보내 당신께 충실할 것을 호소했지만 이스라엘은 끝내 외면하고, 마침내 기원전 587년 아시리아에 패망하고 바빌론으로 유배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바빌론 유배라는 시련을 겪은 이유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느님께서서는 다시 한 번 희망의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구원의 날이 언젠가 올 것이라고... 실제로 이 약속은 페르시아 왕 키루스의 칙령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온 인류가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는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바빌론에 유배를 간 이유도, 인류가 죄에 물들어 죽음을 불러들인 이유도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두 귀머거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다시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느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굳은 혀를 풀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귀도 열어주시기를, 우리의 혀도 풀어주시기를 청해야 하겠습니다.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하느님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지도 못하는 귀먹고 말더듬이 같은 우리의 신앙, 귀가 있어도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하느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는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타오르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서는 ‘에파타!’하시고 우리가 당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당신의 놀라운 빛 속으로 이끌어 주신 분”(1베드 2,9)의 부르심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귀머거리, 병어리 신앙인으로 살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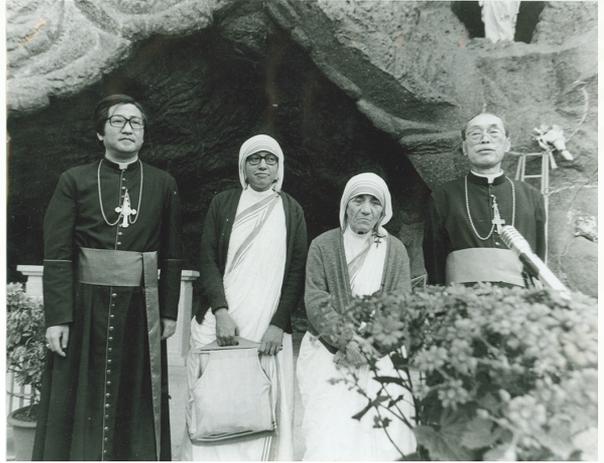
에파타!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 - 서준홍 신부의 성모님 이야기

마더 테레사 수녀의 성모당 방문

1979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시고 1980년 인도의 가장 높은 시민 훈장인 ‘바라트 라트나’를 받으신 마더 테레사 수녀님은 천주교 수도자로서 오늘날 세상에 가장 널리 알려지고 존경받는 분입니다. 1997년 87세의 일기로 선종하신 테레사 수녀님은 이미 많은 이들로부터 성녀로 추앙받고 있으며, 복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2003년 10월 19일 수녀님을 ‘캘커타의 복녀 테레사’라는 호칭으로 복자위에 올리셨습니다. 복녀 테레사 수녀님은 1950년 인도 캘커타에 ‘사랑의 선교회’를 설립하여 45년간 빈민과 병자, 고아 그리고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 생애를 바쳤습니다. 아무 시설도 인력도 없이 맨 주먹으로 시작했던 테레사 수녀님의 사랑의 선교회는 계속 확장되어, 이제는 123개 국가에 610개의 선교 단체가 생길 정도로 커졌습니다.

테레사 수녀님은 1981년 5월 4일 성모당을 방문하셨습니다. 당시 교구 총대리이셨던 이문희 주교님을 비롯한 성직자들의 따뜻한 영접과 수백 명의 수도자들과 신자들의 환영을 받으셨습니다. 성모당의 성모상 앞에서 기도를 바치신 후 테레사 수녀님은 당시 교구장이셨던 서정길 대주교님을 예방하고 환담하신 후 각계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갖고, 부산에서 올라온 한국 사랑의 선교회 수사들을 접견하셨습니다. 저녁 식사



를 마친 후에는 대구가톨릭대학교(당시 효성여자대학)에서 강연을 하셨습니다. 이 강연에서 복녀 테레사 수녀님은 이제 온 세상 사람들이 널리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하느님 손안의 작은 연필에 불과합니다.”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재산이 많거나 높은 지위에 오른 이들은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지만, 곧 잊히고 맙니다. 하지만 돈 한 푼 없이 평생을 아픈 사람들과 죽어가는 사람들 곁에서 시종들다가 돌아가신 테레사 수녀님은 국경과 종교를 초월해서 무수한 사람들의 존경을 받습니다. 성모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느님께서는 비천한 이들을 들어높이시기 때문입니다. 대구주보

9월의 신앙실천 캠페인 **신자라면 신자답게**



자주 성찰하고 고해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당신 자녀로 삼으셨지만 우리는 이 은혜를 자주 잊어 버리고 세례 받을 때의 약속을 어기고 맙니다.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는 줄곧 신의를 저버리는 사람을 상중하지 않으려 하지만, 좋으신 하느님께서서는 자꾸만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건강해지고 싶으냐?”(요한 5, 6)하고 물으시는데, 어찌면 우리는 계속 병들어 있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닌지요?

하느님의 자비와 정의

주국진 보나벤투라 신부 | 교구 청소년국장

주일 말씀

“열려라!”

제1독서의 이사야 예언자는 시적인 표현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느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으며, 복음서의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의 구원을 당신의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열려라!” 하고 말씀하시자 귀먹고 말더듬는 이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열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귀가 열려 하느님의 복음을 듣게 되고 혀가 풀려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말씀과 교리

– 하느님의 자비와 정의의 현세적인 모습

하느님께서서는 자비로우시며 동시에 정의로우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억압받는 이들을 돌보시는 자비로우신 하느님이십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고 이방인을 보호하시며 갇힌 이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 먼 이들을 보게 하시며 굶주린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소외된 이들의 처지를 개선하시는 정의의 하느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드러내기 위하여 고통 받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고 그들의 위한 정의로운 일을 해야 함을

오늘 복음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억압받는 이들의 고통스러운 상황은 외면하면서 권력자와 부자들만 가까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가난한 이들에게 현실적인 가난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믿음으로만 부유해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억압받는 이들이 세상의 부정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도만으로 정의를 부르짖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평화와 사랑의 하느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는 하느님의 자비와 정의를 실천함으로써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것을 실천하는 그 순간부터 세상의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기아를 극복하고 가난을 몰아내는 것으로 일이 끝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빈곤의 극복이 아무리 급하고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인종이나 종교나 국적의 차별 없이 누구나 다 타인과 자연의 예속 상태에서 해방되어 참으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계, 명실상부한 자유 세계, 가난한 라자로도 부자와 같은 식탁에 앉을 수 있는 인간 공동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것이다.” (교황 바오로 6세의 회칙, 민족들의 발전 47항, 1967년)²⁴²

묵상해 봅시다.

- “열려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육체적 치유의 기적 이상의 의미가 있다면,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무엇에 대하여 열려야 할까요?

나눔과 섬김의 현장 - 포항시장애인종합복지관 편

“일을 하게 되어 정말 기뻐요!”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장애를 갖고 있으면 온 가족이 힘듭니다. 하지만 가족 모두가 장애인이라면 어떨까요?

2009년에 바로 그런 가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청각장애인이었던 것입니다. 었친 데 덮친 격으로, 큰딸 전○○ 씨는 염색제 이상으로 인한 희귀병을 앓고 있어 목숨까지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입원비만 해도 천만 원이 드는데, 생활비만 해도 모자라는 판에 수술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급한 일이 많아도 사람 목숨만큼 급한 것이 없겠지요. 백방으로 도와주실 분들을 찾다가 다행히도 밀알 회지의 <함께 나누어요> 코너에 실린 기사를 읽으신 회원 여러분이 후원해 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안타까운 사연을 들으시고는 병원 측과 협의하여 수술비를 반액으로 깎아 주셨습니다. 전 씨는 수술 후 못 알아볼 만큼 달라졌습니다. 굶어있던 체형이 바로잡힌 것도 달라진 점이지만, 아무도 신경 써 주지 않는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격려해 주는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인이 먼저 “직업을 갖고 싶다”고 의지를 보였을 때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전 씨는 현재 장애인 직업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자립사업단에서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계십니다.

포항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직업 재활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는 <카페 카리타스>는 지금



직업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들

세 군데가 있는데, 그 중 3호점에서 바리스타로 일하시는 박○○ 씨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입니다. 2년간의 직업 재활 훈련을 받고 나서 바리스타 자격을 취득한 박 씨는 언젠가 아버지의 고향인 제천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박 씨는 “일을 하게 돼 정말 기뻐요. 최고의 커피 맛으로 보답하고 싶습니다.”하고 말합니다.

직업재활은 단순히 장애인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스스로 일하고 한 사람 몫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한기 때문입니다. 장애인들은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사람,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들입니다. 

포항시장애인종합복지관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선교사제 파견미사



1980년부터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 대구관구 수녀님들이 파견되어 활동 중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방기대교구에 선교를 떠나는 남종우(그레고리오) 신부님과 배재근(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님을 위한 파견미사가 8월 30일(목) 오전 11시 성모당에서 교구장 대주교님의 주례로 봉헌되었다.

■ 순교자 서태순(베드로) 비석 축복식



순교자 서태순(베드로) 비석 축복식이 9월 1일(토) 오전 11시 한티순교성지 내 십자가의 길에서 있었다. 교구 시복시성위원회에서는 1975년에 세워진 비석에 잘못된 부분을 확인하여 2008년경부터 자료 조사를 실시하고 새롭게 비석을 건립하게 되었다.

부고

금주의 주요 교구 일정

- ▶ 제1회 교구장기 게이트볼대회
일시: 9월 11일(화) 10:00
장소: 성서 실내 게이트볼 구장
- ▶ 진량본당 15주년 및 견진
일시: 9월 16일(일) 11:00

장태식(리노) 신부님 선종



대구대교구 소속 장태식(리노, 향년 78세) 신부님께서 지난 9월 3일에 선종하셨습니다. 9월 5일에 장례미사를 거행했으며, 교구청 내 성직자 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도 에파타!

박성규 엘리지오



성소 | 피정

힐데가르트 영성피정

기간: 9.15(토) 15:30~16(일) 16:30
 장소: 베네딕도 영성관(회비: 6만원)
 문의: 툇핑포교베네딕도수녀회
 313-3425(선착순 60명)

예수성심전교수녀회 젊은이 피정

기간: 9.21(금)~23(일)(회비: 4만원)
 장소: 예수성심전교수녀회 부산본원
 주제: 마음의 영성-수발리에를 만나요
 대상: 축제참가자 및 35세미만 여성
 문의: 로사리아수녀, (010)9330-3104

내적여정(에니어그램) 기본1,2단계

기간: 9.21(금) 11:00~23(일) 14:00
 10.12(금) 11:00~14(일) 14:00
 수강료: 14만 원
 주최: 올리베타노성베네딕도수도회
 문의: 안젤로수사, (010)3664-3986

교육 | 모집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한 ME주말

대구303차: 10.12(금) 19:00~14(일) 18:00
 장소: 한티피정의집, 문의: 983-0521
 배우자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차동엽(노르베르도)신부님 특강안내

일시: 9.10(월) 14:00, 회비: 5천원
 장소: 교구청 교육원 다동 대강당
 내용: 가정, 사회,
 교회안에서 여성사도직
 문의: 교구 여성위원회, 254-6115

청년프란치스코회원 모집

자격: 만 35세 이하 가톨릭신자
 봉헌식: 9.22(토) 16:00
 장소: 프란치스카눔 (월배성당 뒤)
 문의: 632-9800 / (011)9594-9441

순교자성월에 듣는 교회음악

일시: 9.15(토) 16:00

진행: 흥승란 프란치스카 로마나
 문의: 관덕정, 254-0151
가톨릭상지대학교 원격평생교육원
 개강: 9.11(화) 학점은행제를 통한
 사회복지, 보육 학위 및 자격증취득
 문의: 1577-0361, www.cec.or.kr
새빛학교 기초 영어 · 한문반 모집
 영어개강: 9.11(화) 13:00 (주2회)
 한문개강: 9.11(화) 15:00 (주1회)
 문의: 교무실, 476-3100 (교대역)
양업고등학교 신입생 모집
 원서교부-접수: 9.17(월)~25(화)
 주소: 충북청원군옥산면환희길277
 문의: 교육지원실, (043)260-5076, 5078
<http://yangeob.hs.kr>
가톨릭문화관 교육생모집(476-6211)
 통기타, 바이올린, 초코아트, POP
 툴페인팅, 폼아트, 플룻, 대금,
 오카리나, 우쿨렐레

미사안내

3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및 일일피정	9월 10일(월) 오전 10시	월성성당 소성전
경주지역 교정사목후원회 미사	9월 10일(월) 오전 10시	성건성당
구미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9월 10일(월) 오전 11시	신평성당
포항지역 밀알회 미사	9월 10일(월) 오전 11시	죽도성당
2대리구 성소를 위한 기도모임	9월 10일(월) 오전 11시 30분	범어성당
대구가톨릭생활성가협회 월례미사	9월 10일(월) 오후 7시 30분	삼덕성당
3대리구 교정사목후원회 미사	9월 15일(토) 오전 10시	월성성당
미바회 월례미사	9월 15일(토) 오전 11시	성모당
평화를 위한 프란치스칸 영성미사	9월 15일(토) 오후 3시	프란치스카눔 (월배성당 뒤)

30년 전통의 전자파없는 돌침대
(주)장수구독옥돌침대
 2인용 옥돌침대 **88만원**
1544-3837
(053) 656-9990
 앞산네거리 (보훈청 옆건물)
 대표 : 소춘호(레오)

전통한복의 명가 대한민국 한복명장
이명자 한복방
 · 혼수/예단/수의 · 한산모시 전문점
 중구 반월당 삼정그린코아 상가 115호
(053)421-2827/421-2828
 이명자(세실리아), 강윤정(아레스)

2007 ISO 9001-2000 품질관리 인증업소, 그 명성과 자부심
 엄선된 최상급 식재료와 올리브유, 식물성 기름만을 고집합니다.
 품질높은 비즈니스 모임, 경조높은 최고의 상견례 명소

 대표 : 정경숙(스텔라), 황기철(요한)
예약 (053)767-6700 대구 우성동 100번지

당신의 삶에 날개를 달어드립니다.
나래정형외과
 발, 발목질환수술/골다공증/스포츠의학
 정형외과 전문 의 원장 박성기(리노)
 TBC 방송국 옆 두산오거리방면
(053)241-8275

포장이사는
천사익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상담 **080-118-1004**
 김태기(안토니오) 011-503-2404

미소나라 출장뷔페
 예식뷔페, 기업체행사
 각종 야외행사, 성당행사, 장례뷔페
 사회적기업 (주)서구웰푸드
 문의전화 **(053)555-4843**
<http://www.미소나라.kr>

HS **희성고속관광(주)**
 HEE SUNG EXPRESS TOURIST CO., LTD
 서상운(안젤로)
 송정애(안젤라)
 전세버스 / 국내여행 / 해외여행
(053)522-5800 | 017-508-4328
 010-2002-4328

(주)평화하이텍
 대형저울, 계량기, 계측기 국가교정검사
 전자저울 · 계측기판매 · 수리 · 교정검사
 대표 한상근(알렉산델)
TEL (053)357-1117
FAX (053)357-1123

한티순교성지 도보순례 및 음악제

일시: 9.22(토) 9:30, 가산산성 집결
미사: 조환길 대주교님 주례
음악제: 한티피정의집 잔디공원
미사: 15:00 / 음악제: 16:00
문의: 교구평협, 250-3057

행사 | 모임

9월 예비신학생 모임

일시: 9.16(일) 14:00
1~3대리구: 남산동 대신학원
4대리구: 성동성당, 죽도성당
5대리구: 5대리구청, 평화성당

대구평화방송 개국 16주년 기념음악회

일시: 9.14(금) 19:30, 수성아트피아
출연: 인씨엠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최성수, 성악가-김은주, 이의춘, 나정신
예매: 티켓링크 / www.dgpbcc.co.kr
문의: 251-2610, 2621 / 전석 2만 원

밥이 되어 주세요! 제2회 7080 밥콘서트

일시: 9.22(토) 16:00 / 19:30 (2회)
장소: 앞산 대덕문화전당, 입장권: 1만원
문의: 밥밴드, (010)9577-7819
공연수익금은 결식아동들을 위해
쓰여집니다.

뮤지컬 <울지마톤즈> 대구공연

이태석신부님의 일대기를 그린 뮤지컬
기간: 9.14(금)~16(일) 3일간
장소: 대구오페라하우스

신자특별할인: 30% (대구주보지참)
문의: 254-7241, 오페라하우스666-6000

교육 | 모임

9월 가나강좌 안내

일시: 9.16(일) 9:30~17:30
장소: 가톨릭대학병원 내 의대 마리아관
참가비: 2만원, 당일접수 (무료주차)
문의: 641-5678 / (010)8853-7458

2012년 2학기 신학강좌 수강생 모집

신학(교회사, 윤리신학1, 성사론, 철학,
기초신학), 특별전례와 삶, 동양사상)
신약 / 구약성경과정, 신약성경입문
다음카페: 평신도신학교육원
문의: 660-5105~6

이곡성서대학 신·구약 성서 듣기반

개강: 9.6(목) 10:30, 20:00
내용: 일반성서듣기 오전반, 저녁반
범위: 예언서, 지혜문학
강의지도: 이재수 신부
문의: 이곡성당, 584-7744

지성인을 위한 신앙특강

일시: 9.15(토) 10:00, 남산동대신학원
주제: 진리 안에 사랑 _ 사회교리
개요와 영성적 토대, 참가비: 5천 원
강사: 성염 (전 교황청 한국대사)
문의: 신학교육원, 660-5105~6

여성부인정 가정폭력·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생 모집
기간: 9.18~12.18 (매주 화) 9:30

대상: 전문대졸업자 이상
문의: 대구가톨릭상담원교육센터
253-1401

대학생 필리핀 해외봉사·어학연수

기간: 3차 9.23(일)출발 (8주, 12주)
기타: 캐나다, 호주 연계연수 가능
문의: 대구청소년수련원, 593-1273

운전기사 사도회 월례회 및 회원모집

일시: 9.12(수) 13:00
장소: 교구청내 사도회사무실
자격: 천주교 신자이거나 교리종인자
문의: 강청남, (016)520-8330

하반기 부자녀캠프 신청

일시: 1차 9.22~23, 2차 10.13~14
장소: 명곡 가톨릭스카우트교육원
대상: 아버지와 초4 이상 자녀들
인원: 차수당 선착순 40명
문의: 교구 청소년국, 250-3064~6

가정 안에서의 자녀교육 기부 특강

내용: 자녀교육을 위한 주제별 특강
(공문 '천대교 2012-0125' 참고)
대상: 봉당단체 (자모회 등)
유치원 (학부모 대상)
신청: 교구 청소년국, 250-3063

가톨릭요셉발간강회 강좌(발은 제2의 심장)

일시: 매주 토 14:00~16:00 (10회)
(교재 및 도구포함 10만원)
문의: 476-7774
<http://www.footfather.com>

책임보험 1억 가입업체
도우미익스프레스
포장이사·사무실이사·일반이사
대표 양말순(루시아)
591-2424 656-9911
010-2008-2329

곽앤신업 이비인후과
진료과목 - 성형외과 · 소아청소년과
의학박사/원장 신재훈(루카), 광동석(아우구스티노)
코수술 전문병원 (축농증, 비염, 코골이, 코성형)
(1호선 성당역 3번 출구)
☎ (053)638-7582(치료빨리)
<http://www.ksnose.com>

진실한 신자와의 만남의 장
성가정 결혼
(053)474-0025, 476-9275
가톨릭 문화관 2층
남대구우체국 옆 교대역 입구
권중문(파비올라)

소중한 건강을 위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경대연합내과의원
내시경·초음파·호흡기질환 전문
공단검진·각종 종합검진·예방접종
원장·전문의 이재욱(바오로)
(전 안동병원 내과과장)
☎ 475-3366 Fax. 475-3311
봉곡동 효성타운 효성스모크스 1층

약령시사람들
탈모 방지 양모 경육생 삼푸 & 토닉
경육고지, 음료, 경육고추장, 된장, 간장(신제품)
3대를 이어온 경육 명가(약령한, 경육활력소)
대표 양대석(안토니오), 임영주(모니카)
T. 1644-8807, (053)428-8002
+ 교우님 특별우대 판매

성인시들 목장우유
정제제주의 신선한 우가농우유
유기농우유, 저지방우유, 제주초지방목우유
대구총판매점 대표
최준하(바오로), 박창완(마리아)
☎ (053)426-3300 www.jejumilk.kr

경일신경과내과의원
· 뇌졸중(중풍), 치매조기진단
· 성인병, 5대암, 생애진단검진
· 어지럼증, 두통, 손발저림 진단 및 치료
MRI, CT 영상의학진단센터
- 신경과 전문의 4인 - 내과 전문의 2인
-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
☎ 476-0533 www.kinm.co.kr

SM **수맥 흠침대**
불면증, 허리통
임응승 신부님 수맥지도
☎ 1588-5335